

發明獎勵事業의 支援方向

田 峻 恒

〈辨理士·特協理事〉

1 發明獎勵施策의 沿革

우리나라의 發明은 靑瓷·金屬活字·測雨器·거북船等 燦爛한 歷史를 가졌음에도 이를 뒷받침해야 할 發明獎勵事業은 傳統的이며 體系的인 것이 아니라 자못 理念的이며 概念的인 形態를 벗어나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렀다.

原來 發明保護를 위한 特許制度의 由來는 1908年 8月 12日 舊韓末 當時의 日本統監府가 支配해온 韓國特許令 公布에 따르는 統監府特許局이 設置되고 當時 倭帝의 彈壓下에서 國權回復의 救國運動으로서 民族指導者들에 依하여 物產獎勵와 發明獎勵運動이 繼續되어 왔던 것이다. 解放과 더불어 1946년에 實施된 特許法으로 우리나라 最初의 特許制度가 마련됨으로써 發明保護法의 制定을 보게 되고 發明獎勵運動이 試圖되어 왔으나 그 結果는 그렇게 滿足스럽지 못하였다.

그러나 政府는 李朝 世宗大王時 世界最初의 測雨器가 發明되어 實用化되던 1442년 5월 19일 을 널리 기리는 뜻에서 發明思想의 鼓吹를 위해 1957년부터 「발명의 날」로 제정하고 16년동안 紀念行事 및 各種事業을 展開하여 왔으나 1972년에 이르러 政府의 各種關聯行事의 統廢合方針에 따라 1974년 3월 20일의 『商工의 날』 行事와 統合시켜 獨立性을 逸失하게 됨으로써 發明賞도 模範商工人表彰에 包含되어 표창하여 왔다.

또한 發明考案으로서 工業所有權으로서의 權利를 活用시켜 發明의 企業化를 助長하고 나아가서는 產業發展을 促進시키기 위해 1958년 3월

11일 發明保護法을 制定하고 發明品の 生産輸出 및 普及을 獎勵하고 發明家의 保護育成을 目的으로 하여 이법이 지니는 効力은 대단하여 外國에서도 그 類例가 없는 劃期的인 獎勵施策으로서 發明에 관한 國家의 重要施策에 대하여 政府의 諮問에 應하고 政府에 建議도 하는 發明保護委員會까지 運營하였다.

따라서 同法에 의하면 優秀한 發明품으로 인정될 경우 特許는 事業開始日로부터 5年間 實用新案은 3年間 營業稅, 所得稅, 物品稅 등 稅制上 廣範圍하게 免除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國內發明品이 國外에서 生産되어 國內에 輸入될 경우 關稅를 免除함은 물론 生産에 필요한 金融支援과 資材의 供給까지도 優先的으로 勘案하도록 마련되었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너무나 廣範圍한 對象에 適用시켜 그 運營의 妙를 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칫 誤用되는 傾向이 나타나 國家租稅收入에 跌墜을 가져다줄 可能性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모처럼 發明獎勵制度로서의 助長行政에 뜻을 피우지 못하고 드디어 1966년부터 發明보호법은 租稅減免規制法의 公布施行으로 遺憾스럽게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機能을 喪失하여 有名無實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發明보호법이 効力을 잃고 있다고는 하지만 政府에서는 1977년에 特許廳 發足を契機로 汎國民的인 發明獎勵事業을 展開하기 위하여 韓國特許協會와 共同으로 國內에 登錄된 特許·實用新案中에서 우수한 發明考案으로 嚴正하게 選定하여 표창함과 아울러 未實施된 特

許權으로 活用實施토록 幹施한다던지 國內의 우수한 발명품으로 海外에 出願할 수 있도록 誘導 助長하며 나아가서는 外國의 特許技術展示會에 出品할 수 있도록 勸獎支援함으로써 발명의욕을 북돋아 주고 있다.

더우기 特記할 것은 全國民의 發明意識構造의 改善을 위해 그 基本이 되는 자라나는 初中學生을 對象으로한 發明作文懸賞募集으로 韓國特許協會가 主管하여 協會創立 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시함으로써 전국에서 數千의 學生이 應募하여 우수한 作品들이 每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將來가 大端히 밝다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이와같은 사업이 歷史는 日淺하지만 軌道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특허청을 비롯한 關係部處와 教育機關, 企業人들의 支援때문이라는 것도 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

2 外國의 發明獎勵制度概觀

歐美先進國들은 産業技術發展의 歷史的背景은 우리나라와는 全然 다르게 先發된 특허제도에 있어서 法律로서 발명가에게 特典을 賦與한데다 産業技術을 中心으로한 조장행정으로 豊富한 資源과 頭腦人力으로 調合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發明獎勵制度의 沿革과는 그 類型을 달리하여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나라와 特許制度運用이 比較的類似한 日本의 發明振興事業을 紹介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1世紀에 가까운 발명장려제도의 역사와 傳統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는 學國의으로 발명장려 및 創意性開發을 위한 多様な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이제는 自立化된 成熟段階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겠다.

歐美先進國보다 모든面에서 특허제도가 뒤떨어졌던 19世紀의 일본은 西歐의 文物을 받아들이는에는 무엇보다 緊迫하였던 것은 産業發展으로 촉진시키는 原動力인 특허제도의 導入이라는 것으로 自認하고 1885년부터 明治維新의 一環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事實이다.

이러한 背景을 土臺로 하여 日本 特許制度 90年의 역사가운데 黃金期를 누릴수 있었던 것은 2次大戰 以後에 過去부터 내려오던 발명장려사업으로 本格化하여 學國의으로 同事業을 生活化하면서 周到綿密하게 推進하여 왔기 때문이다.

먼저 日本政府는 발명장려사업을 主導할수 있는 關係民間團體(例示하면 日本의 發明協會, 特許情報센터등)의 活動基盤構築을 위해서 必要 基金으로 出捐하고 이를 財源으로한 各種 收入事業을 圓滑히 할 수 있도록 造成해 주어 이제는 完全自立段階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발명장려사업으로 成功裡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羨望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日本政府 科技廳 및 特許廳에서는 技術振興의 基盤構築에 貢獻하고 있는 勤勞者와 創意研究育成에 參與한 學校에 표창하는 創意研究功勞者表彰制度和 發明考案 및 發明開發의 貢獻者에게 日本國家에서 授與하는 權威있는 黃綬, 紫綬藍, 褒章制度를 90餘年동안 存續시켜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關係民間團體의 主流를 이루는 發明協會는 全國의 優秀發明者와 全日本 學生兒童의 最高作品에 대하여 皇室로부터 恩賜發明賞과 恩賜紀念賞으로 每年 下賜贈呈하게 됨으로써 전국에서 우수한 발명품과 學生工作品이 많이 出品展示되어 왔다.

그 以外에도 地方發明表彰, 未實施優秀發明展, 全日本學生發明展, 世界兒童創意展, 敎職員發明展, 全國發明振興巡迴會議등의 발명장려사업으로 크게 벌이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海外出願者에 대한 出願獎勵를 위해 中小企業 個人등에 出願補助金으로支給하고 있는데다 발명품의 企業化를 위한 施設에는 稅制支援를 해주고 있음도 발명자와 研究者에게 큰 負擔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日本特許廳과 科技廳은 相互 協調補完하여 關聯民間團體를 통해 ① 研修會등 人材養成 ② 特許情報의 流通促進 ③ 發明相談 ④ 試作品의 技術指導 ⑤ 權利의 流通 및 實施斡旋 등의 발명장려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더우기 工業所有權의 國際化에 對處하여 早期

公開制度의 既實施, 物質特許認定, 多項制實施 IPC에로의 急轉換등 制度의인 補完도 아울러서 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關聯하여 特記해야 할 것은 일본의 발명 장려사업이 本軌道로 進入할 수 있었던 源泉으로서 日本天皇의 榮譽스러운 恩賜紀念賞을 受賞하기 위하여 전국의 어린이들이 生活 및 學習에서의 아이디어를 實驗實技를 통해 完成 出品하는 오랜 傳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雙璧을 이루는 장려사업으로서 企業이나 個人發明家들이 그들의 特許·實用新案品을 出品하여 踴躍이 하사하는 은사발명상을 競受受賞하려는 의욕의 結晶이 產業界로 스며들어 오늘 날에 와서는 世界 最大出願國으로서의 底力을 나게 한 것이다.

이 以外에도 各種 發明團體가 실시하고 있는 主婦아이디어品募集展示, 에너지節約方案으로 모집하는 등 各界 各層을 對象으로 하는 발명 장려사업이 해야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想起해야 할 것이다.

[3] 發明獎勵事業의 効率化方案

發明創案을 誘導하는 발명장려사업의 本質은 국민들에게 생활속의 發明意識을 심어주어 보다 合理的이며 改善向上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技術發展에 直結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발명장려사업은 文化生活을 누리는 人間이 生存하는 날까지는 그 方法과 變遷을 달리 하면서 存續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永久的 事業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잘 아는바와같이 新技術의 발명창안은 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이 決코 아니며 國家百年大計 아래 汎國民의으로 발명사상을 鼓吹시켜 국민 누구나가 발명에 關心을 가질 수 있겠금 그 底邊을 擴大시키는 발명장려사업을 效率의으로 전개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특허제도는 역사가 일천한데다 그 運用面에서도 발명창안을 誘導助長할 수 있는 機會가 짧았던 탓으로 그 重要性和 必要性이 浮刻되지 못하였음이 사실

이다.

그리하여 經濟開發初期에는 발명창안을 통한 自體技術開發보다 外國技術의 模放하이나 一貫 工程의 技術導入에만 依存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重化學工業製品의 開發 및 輸出을 위해서도 高度技術의 開發蓄積으로써 國際競爭力을 強化시킬 때가 온 것이다.

이와같은 當爲性에 비추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學國的인 발명장려사업을 劃期的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方案을 摸索해 나갈 때가 온 것이다.

初中學生을 대상으로 발명사상을 昂揚普及시키는 발명장려사업은 정부의 지원하에 韓國特許協會가 創立以來 發明懸賞作文募集으로 실시하여 施賞함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이 繁昌一路에 있고 그 위에 학생들의 實技實習大會, 學生 및 主婦들의 아이디어品展示會등도 計劃하고 있어 발명사상의 普及活動은 이제 本軌道에 進入하였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그 위에 特協會員을 비롯한 國內企業의 最高經營者 및 幹部들의 特許意識을 高揚하는 세미나, 講演會, 關係슬라이드上映과 言論機關을 통한 特許動向 및 企業活動을 紹介하여 줌으로서 一般의 工業所有權認識이 새로워지는 段階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그러나 특허권의 實施活用이나 國內外出願獎勵 및 關係法の 改善補完을 위해서는 정부의 繼續的인 制度的 支援과 關係機關 및 經濟界 一般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허권의 活用促進問題는 現存의 特協內 流通센터를 더욱 補強하는 方向에서 出願 및 登錄權者와의 連繫的인 紐帶強化를 위한 특허청의 지

끌으므로 발명장려를 위한 關係法和은 工業所有權國際動向과 國內實情으로 調命있게 손질하여 改正補完 해 나가야 할 것이며 優秀發明人과 그 발명품에 授與하고 있는 표창사업을 施賞處, 施賞種目, 施賞金등을 格上시켜 줌으로써 政府의 積極的인 支援下에 발명의욕을 더욱 북돋아주는 契機와 믿거름이 될 수 있을것으로 期待되는 바 크다 할 것이다. ※